'명품 중랑동행길' 조성 속도전
녹지·하천·역사·문화공간으로
區, 서울시 특교금 10억 확보
내년 4월까지 정비·수목 식재

중랑구(구청장 류경기)가 하반기 서울시 특별조정교부금 10억원을 확보해 '명품 중랑동행길 조성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

이번에 확보한 특별조정교부금 10억원은 ▲중랑동행길 안내체계 개선 ▲묵동천변 수목 및 화관목 식재를 통한 경관 개선 등에 투입된다.

구는 이달부터 세부 사업별 설계와 안내시설 디자인을 구체화하고, 오는 2027년 4월까지 안내체계 정비와 묵동천길 경관 개선을 순차적으로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5일 밝혔다.

먼저 중랑동행길 21km 전 구간에 통일된 브랜드 아이덴티티(BI)와 디자인을 적용한 종합안내판, 구간안내판, 방향안내판 등을 설치해 이용객들이 현재 위치와 이동 방향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스탬프투어도 개선해 새로운 스탬프함과 지도를 제작·운영하고, 걷기 코스 탐방에 참여 요소를 더할 계획이다.

묵동천 구간에는 식재 기반을 조성하고 그늘목과 장미, 수국 등 계절별 꽃을 심는다. 기존의 단조로운 하천변 경관에 계절감을 더하고, 휴게시설도 확충해 걷는 중간에 쉬어갈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한다.

한편, 중랑동행길은 기존 중랑물레길을 새롭게 정비한 총연장 21km의 순환형 걷기 길로, 묵동천길부터 망우·용마산길, 중랑천길까지 지역내 주요 녹지와 하천, 역사·문화자원을 연결한다. 구는 오는 2029년까지 '찾기 쉽고, 걷기 편하고, 즐기고 싶은 중랑동행길'을 목표로 단계별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류경기 구청장은 "중랑동행길이 주민과 방문객 모두에게 친숙한 걷기 길이 될 수 있도록 안내시설과 주변 경관을 함께 개선하겠다"며 "앞으로도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구간별 특성에 맞는 정비를 이어가 누구나 편하게 찾고 걸을 수 있는 중랑동행길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여영준 기자 yyj@siminilbo.co.kr

종로구, 신영동 공영주차장 14면·주민편의시설 23일부터 운영

종로구(구청장 유찬종)는 신영동 219-11에 조성한 공영주차장과 주민편의시설을 오는 23일부터 운영한다고 5일 밝혔다.

시설은 연면적 576.66㎡, 지하 1층~지상 2층 규모다. 지하 1층과 지상 1층에 일반 주차면 11면, 장애인 전용 1면, 가족배려 2면 등 총 14면을 확보했다.

거주자우선주차 이용자뿐 아니라 방문 차량도 주차할 수 있으며 24시간 무인으로 운영된다.

지상 2층에는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공유 주방과 다목적실을 마련했다.

구는 주택이 밀집한 신영동 일대의 주차 불편을 줄이면서 주민 교류 공간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공식은 오는 10일 오후 2시 현장에서 열린다. 사업은 2019년 타당성조사에서 시작해 2021년 기본·실시설계를 거쳤으며, 2023년 5월 착공 후 이달 공사를 마쳤다.

구는 지난해 삼청제1공영주차장 178면, 창신소담공영주차장 176면, 옥인제1공영주차장 90면을 준공했다.

올해 1월부터는 성균관대학교 등 민간시설 3곳의 부설주차장도 주민에게 추가 개방했다.

성균관대학교는 24시간 거주자 우선주차를 월 6만원에 이용할 수 있고, 럭키평창빌라와 명관교회는 평일에 무료 개방한다.

유찬종 구청장은 "주민이 언제든 편하게 이용하도록 시설을 꼼꼼히 관리하고 개방시설도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챙기겠다"고 밝혔다.

이대우 기자 nice@siminilbo.co.kr



학부모 소통 간담회 영등포구는 지난 3일 구청 본관 3층 1회의실에서 영원초등학교 학부모들과 '2026년 학부모 소통 간담회'를 진행했다. 사진은 조유진 구청장이 학부모들과 의견을 나누고 있는 모습.

광진구, 11일 군자역 사거리 횡단보도 정식 개통
지장물 이설·보도 턱 낮춰… 지하철역 계단 이용 불편 해소

광진구(구청장 김경호)는 오는 11일 '보행자의 날'에 맞춰 군자역 사거리 동측 천호대로를 남북으로 잇는 횡단보도를 정식 개통한다고 밝혔다.

군자역 사거리는 지하철 5·7호선 환승역과 주변 상권을 이용하는 보행자가 많은 곳이다. 그러나 동측에 남북을 잇는 횡단보도가 없어 도로 건너편으로 이동하려면 지하철역 계단을 이용해야 했다.

특히 노인과 장애인, 유아차 이용자 등이 불편을 겪으면서 2009년부터 횡단보도 설치를 요구하는 주민들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구는 이러한 주민 숙원을 해결하기 위해 기존 교통안전시설 심의에서 부결된 원인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해 왔다.

유관기관 합동점검과 주민설명회를 통해 현장 여건과 주민 의견을 확인하고, 기본설계 합동회의와 보완설계 검토회의 등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지난해 11월 서울특별시경찰청 교통안전시설 심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군자역 3번·5번 출구 사이에 길이 41m, 폭 6m 규모의 횡단보도를 신설하고, 전신주 등 지장물 이설과 보도 턱 낮춤 등 주변 보행환경 정비도 함께 추진한다. 횡단보도 설치뿐 아니라 접근 과정에서도 보행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구는 보행의 중요성과 보행자 안전을 도시가는 '보행자의 날'에 맞춰 개통일을 정했다. 개통 이후에는 지하로 내려가지 않고도 천호대로를 건널 수 있어 이동 동선이 짧아진다. 이에 따라 교통약자의 이동이 편리해지고 천호대로 양쪽 생활권을 오가기도 쉬워질 것으로 기대된다.

여영준 기자 yyj@siminilbo.co.kr

민주주의 축제 '민회' 상정 안건·참가자 확정
영등포구, 내달 3일 대토론회

영등포구(구청장 조유진)는 구민이 지역 현안을 직접 토론하고 결정하는 민주주의 축제 '민회(民會)'의 상정 안건 10건과 구민 참가자 200명을 최종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민회(民會)'는 헌법상 국민주권 원리와 지방자치법의 주민 참여 권리를 행정 현장에서 구현하는 영등포구만의 직접 민주주의 제도다.

구는 지난 10월7~30일 온라인과 오프라인 등을 통해 안건을 접수, 이 가운데 10개의 안건을 선정했다.

이번에 선정된 안건은 ▲주거지 인근 데이터센터 건립 갈등 해결 방안 ▲중장년·재취업자 AI 활용 취업프로그램 운영 ▲청소년 문화공간 확대 ▲영등포 타임스퀘어광장 구민 활용 방안 ▲보행환경 개선을 통한 쾌적한 거리 조성 ▲주거밀집지 주차공간 확충 및 공유 ▲통합신청사 건립 방향 논의 ▲출산율 1.0 달성을 위한 출산·육아 친화도시 조성 ▲어르신·중증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재활용품 품목별 배출 요일제 검토 등 총 10건이다.

또한, 토론 참가자 200명도 선발했다.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개 모집 후 동별 인구 비례에 맞춰 지역별 무작위로 총 200명을 추첨했다.

선발된 구민 200명은 오는 20일 오후 2시 영등포동 주민센터 5층 체육관에서 열리는 '사전토론회'에서 10개 안건을 대상으로 토론과 투표를 진행해 민회에서 논의할 최종 3개 안건을 채택한다.

또한 오는 12월3일 오후 2시 신길책마루문화센터 1층 대체육관에서 열리는 민회 대토론회에서는 이 최종 안건 3개에 대한 구민들의 숙의와 토론을 거쳐 최종 사업을 선정하고, 이를 구정에 적극 반영할 예정이다.

구민이 직접 참석하는 대면 토론회와 별도로 민회 참가신청자 중 200명에 선정되지 않은 구민을 대상으로 온라인 토론도 병행한다.

사전 토론회와 민회 대토론회 일정에 맞추어 동시 진행되며, 대상자는 문자를 통해 전송된 url을 통해 토론에 참여할 수 있다.

여영준 기자 yyj@siminilbo.co.kr

명동 대형전광판 활용 방탈출 게임을~
중구, 21일 '미션페스타' 개최
전용 앱 총 4개 언어 지원도

중구는 오는 21일 오전 10시부터 명동스퀘어 민관합동협의회와 함께 명동관광특구 일대에서 '2026 명동스퀘어 미션페스타'를 개최한다고 5일 밝혔다.

명동의 대형전광판과 미디어폴을 무대로 모바일 방탈출 게임을 즐기는 이색 축제다. 명동길에 다채로운 공연과 체험행사도 마련해 누구나 즐길 수 있다.

명동의 빛을 지키는 비밀요원이 돼 숨겨진 단서를 찾고 문제를 풀어 미션을 완수하는 내용이다. 참가자들은 스마트폰에 '명동스퀘어' 앱을 설치한 뒤 미션 장소를 찾아가면 된다.

미션 장소는 명동 일대 10곳이다. 하나은행, 교원내외빌딩, 신세계백화점, 롯데영플라자, 나우인 명동 등에 설치된 대형전광판과 거리 미디어폴을 활용해 장소를 정했다. 멀리서 감상하기만 했던 전광판이 방탈출 게임 무대가 된다.

방탈출 게임은 21일 행사 당일부터 사전 신청 없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전용 앱은 한국어·영어·중국어·일본어 등 4개 언어를 지원해 외국인 관광객도 함께 즐길 수 있다.

미션에 먼저 도전할 기회도 있다. 구는 오는 13일까지 사전 참여 신청을 하면 16~20일 미션을 미리 수행할 수 있다. 신청은 행사 포스터의 그림무늬(QR코드)나 명동스퀘어 홈페이지를 통해하면 된다. 사전 신청한 선착순 500명에게는 4만원 상당의 방탈출 게임 이용권이 증정된다.

주민들이 동네의 명예를 걸고 겨루는 팀미션 대결도 열린다. 15개 동에서 5명씩 팀을 꾸려 도전한다. 동 대표로 참여를 원한다면 오는 13일까지 거주지 동주민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미션을 해결하는 재미에 푸짐한 경품을 더했다. 미션 성공 개수에 따라 추첨을 통해 경품이 주어진다. 일반 참가자에게는 전기자전거, 로봇청소기, 에어팟 등을, 동대항전 참가자에게는 여행상품권과 영화관람권 등을 증정한다.

롯데영플라자 맞은편 Y광장에서는 오후 2~7시 다채로운 공연과 체험행사가 이어진다.

여영준 기자 yyj@siminilbo.co.kr

먹고 마시고 즐기고 추억도 쌓고…
관악구, 7·14일 골목상권 야간축제
〈서림다복길·신원시장〉

관악구(구청장 박준희)가 11월 지역 골목상권에서 먹거리와 공연을 즐길 수 있는 야간축제를 잇달아 개최한다.

앞서 구는 지난 6월부터 봉천달빛길 골목형상점가를 시작으로 '야간 및 음식문화 활성화 축제'를 릴레이 방식으로 개최하고 있다.

이달에는 율해 새름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된 서림다복길과 신원시장에서 각각 특색 있는 음식문화 행사를 열어 지역 주민과 방문객을 맞는다.

먼저 오는 7일에는 서울대벤처타운역 인근 서림다복길 골목형상점가에서 '밤마실 먹거리 장터 음식문화 축제'가 열린다. 구매 고객을 대상으로 온누리상품권 선착순 페이백 이벤트를 진행하고, 홍보물품 증정과 경품 응모 행사도 마련한다.

캐리커쳐와 캘리그라피 등 체험 프로그램을 비롯해 지역 예술인 공연과 장기자랑 무대도 펼쳐진다. 주민들이 직접 행사에 참여하고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도록 구성했다.

이어 14일에는 신원시장에서 '먹고 즐기고 함께하는 아시장' 이 열린다.

디지털온누리 페이백과 경품 응모, 각종 체험행사도 진행해 전통시장에 활기를 더할 예정이다.

문민호 기자 mmh@siminilbo.co.kr

11일 불암산 솔마루공원 개장
노원구, 소나무원·폭포 조성

노원구(구청장 서준오)가 불암산 자락에 약 1만5000㎡ 규모의 '불암산 솔마루공원' 조성을 마치고 오는 11일 정식 개장한다.

공원이 들어선 중계동 363-12 일대는 불암산 자락에 위치해 수려한 경관을 갖췄지만, 장기간 훼손된 공간으로 방치돼 있었다.

구는 2023년부터 '불암산근린공원(가재울지구) 조성사업'을 추진해 공원으로 탈바꿈시켰다.

공원에는 소나무원과 수국정원, 잔디광장 등을 비롯해 4.5m 규모의 경관 폭포와 실개천이 조성됐다.

특히 소나무원은 국내 대표 수목원인 '화담숲'의 소나무 정원을 벤치마킹해 조성했다.

박소진 기자 zini@siminilbo.co.kr

간추린 뉴스



서초스터디 프로 운영
서초구가 최근 해외 우호교류도시인 프랑스 파리15구 대학생 5명을 초청해 한국문화와 서초의 매력을 알리는 '2026 서초스터디'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사진은 프랑스 대학생들과 전성수 구청장(오른쪽)이 대화를 나누는 모습.

서초구, 폐현수막 낙엽 수거용 포대 배부

서초구(구청장 전성수)가 폐현수막을 활용해 낙엽 수거용 포대 1080개를 제작하고 지역 동주민센터와 환경공무관 등에 배부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버려지는 폐현수막을 생활에 필요한 물품으로 재활용하는 자원순환 사업으로, 푸른서초환경실천단원과 자원봉사자 등 주민들이 제작 과정에 직접 참여했다.

지난 10월 구청 2층 대강당에서는 푸른서초환경실천단원 40명이 폐현수막의 이물질을 제거하고 규격에 맞게 선별·재단했다. 이어 서초여성가족플라자 서초센터에서 자원봉사자 등 주민 54명이 재봉 작업을 진행해 낙엽 수거용 포대 1080개를 완성했다. 제작된 포대는 지역내 17개동 주민센터와 환경공무관 등에 배부됐다.

박소진 기자 zini@siminilbo.co.kr

서대문구, 14개洞 주민자치회 위원 위촉

서대문구(구청장 박문기)는 4년간 활동이 중단됐던 주민자치회를 14개동에서 다시 운영하기 위해 주민 705명을 위원으로 선정하고 위촉 절차를 진행 중에 있다고 5일 밝혔다.

구는 지난 4일 구청 대강당에서 홍제3동·홍은1·2동·남가좌1·2동·북가좌1·2동 등 7개동 주민자치회 위촉식을 열었다. 나머지 충현동·천연동·북아현동·신촌동·연희동·홍제1·2동 위촉식은 오는 11일 열리며, 위원 간 교류를 위한 자치공감 워크숍도 함께 진행한다.

위원 공개모집은 8~9월 실시됐다. 1004명이 지원해 904명이 주민자치학교 교육을 이수했으며, 점원을 넘긴 11개 동은 공개추첨을 거쳐 최종 705명을 선발했다.

재구성된 주민자치회는 복지·환경·교통 등 생활 현안을 발굴하고 분과위원회에서 해결 방안을 논의한다. 주민총회에서는 자치계획과 동 제안사업의 우선순위를 결정한다. 특히 총회에서 의결한 자치계획을 제출받은 구청장은 2개월 안에 반영 여부를 공식 회신해야 한다. 주민총회 안건은 한 달 전에 공개하며 주민설명회와 사전투표, 온라인 참여도 운영한다.

이대우 기자 nice@siminilbo.co.kr

용산구, 정비사업 아카데미… 오늘부터 참가자 접수

용산구(구청장 김경대)가 재개발·재건축에 대한 주민 이해를 높이고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돕기 위해 '2026년 정비사업 아카데미'를 운영한다.

구는 정비사업을 처음 접하는 주민부터 사업에 참여 중인 조합원까지 각자의 이해도와 관심사에 맞춰 교육받을 수 있도록 기초·심화과정을 나눠 구성했다.

기초과정은 오는 24일 오후 2시 용산구청 지하 2층 대회의실에서 열린다. 서경대학교 김병준 교수가 정비사업의 기본 개념과 신속통합기획, 최근 주택공급 제도 변화에 따른 주요 개정 사항 등을 설명한다. 심화과정은 12월2일 오후 2시 용산구청 지하 2층 소회의실에서 '분양신청 및 관리처분의 이해'를 주제로 진행된다.

신청은 6일부터 각 교육일 전날까지 홈보물에 안내된 정보무늬(QR코드)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교육 당일 잔여석이 있으면 현장 접수도 가능하다.

문민호 기자 mmh@siminilbo.co.kr

송파구, 6개 분야 '청년 정책' 제안집 발간

송파구(구청장 서강석)는 '2026 송파 청년정책 연구단' 참여 청년 22명이 6주간의 활동을 마치고 교육·일자리 등 6개 분야의 정책 제안 24건을 책으로 발간했다고 밝혔다.

연구단은 9~10월 총 6차례 운영됐다. 청년들은 전문가 강의와 글쓰기 워크숍을 거쳐 일상에서 겪은 문제를 정책으로 구체화하고 에세이 형태로 정리했다.

교육·성장, 문화·관계, 복지·일상, 생활·안전, 일자리·진로, 참여·교류가 제안 분야다. 구체적인 아이디어에는 QR 신고와 금연구역 경계 표시를 활용한 '적발되지 않는다는 강력한 믿음', 연극을 통한 자기탐색과 관계 형성 프로그램 '송파 청년 RE:PLAY', 진로 전환을 지원하는 '송파 청년 리스타트 패스', AI 기술로 지역 문제를 해결하는 '송파 AI 두드림' 등이 포함됐다.

참가자들은 지난 10월21일 열린 수료식에서 정책 제안을 발표하고 수료증과 표창을 받았다.

이대우 기자 nice@siminilbo.co.kr

강남구, AI 홍보콘텐츠 공모 수상작 선정

강남구(구청장 김현기)는 생성형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지역 정책과 문화·관광 등을 표현한 '2026 강남 대전환!! AI 홍보콘텐츠 공모전' 수상작 46편을 선정했다고 5일 밝혔다.

수상작은 숏폼 영상과 인스타툰에서 각각 23편씩 나왔다. 부문별로 최우수상 1편, 우수상 2편, 장려상 20편을 뽑았으며, 수상자 전원에게 강남구청장상을 수여한다.

숏폼 최우수작 '강남 대전환 상소문'은 조선시대 신하가 왕에게 상소문을 올리는 상황극에 현대·미래 강남의 모습을 결합했다. AI와 로봇, K-테크밸리, 미래인재, 친환경 도시를 소재로 지역의 미래상을 표현했다.

인스타툰 최우수작 '오늘은 그냥 딸로 왔어'는 물봄이 필요한 어머니를 둔 자녀의 간병 부담과 '강남형 통합돌봄' 지원사업을 통해 달라지는 일상을 다뤘다.

이번 공모전에는 9월10~30일 숏폼 109편, 인스타툰 132편 등 모두 241편이 접수됐다.

이대우 기자 nice@siminilbo.co.kr